국민의당 광주시당·전남도당이 11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2018년도 광주·전남 예산 보고대회'를 하고 있다.

국민의당 호남의원들 "국비 증액 3당의 힘"

일각 '호남 퍼주기' 주장 "정치적 억지" 반발

국민의당 광주·전남지역 의원들이 내년도 광주·전남 국비 확보액이 대폭 늘고, 현안 예산이 대거 반영된 데 대해 "다당제 아래 제3당의 힘이 가장 컸다"고 자평했다.

일각의 '호남 퍼주기' 주장에 대해서는 "정치적 억지"라며 반발했다.

11일 국민의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 공동 주최로 광주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광주·전남 예산 보고대회에서 의원들은 "이번 예산 국회는 전국적으로는 다당제, 지역적으로는 양당제 경쟁 체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실히 보여준 계기였다"고 입을 모았다.

김동철 원대대표는 "광주·전남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양당 경쟁 구도가 없었다면 호남 예산 쾌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9년간 방치됐던 호남고속철도 2호선 무안공항 경유 문제와 농업 예산 확보가 대표적인 협치 사례"라고 말했다.

박지원 전 대표는 "국민의당의 갈 길은 예산의 길이라는 것을 피부로 느꼈고 앞으로 깊이 새겨야 할 것"이라며 "특히, 호남에서는 국민의당이 28석 중 23석을 차지하고 있어서 앞으로 3년은 우리랑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승용 전 원내대표도 "원내 3당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재인식하고, 균형과 견제를 기본으로 하는 3당제가 왜 중요한지 일깨워준 계기였다"고 밝혔고, 국회 부의장인 박주선 의원도 "다당제 아래 3당의 역할을 여실히 보여준 단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초선 의원인 손금주, 윤영일 의원 등도 제3당의 역할론에 방점을 찍었다.

호남 예산 퍼주기 논란에는 앞다퉈 반발했다.

박 전 대표는 "호남고속철도 무안공항 경유에 1조원이 추가 투입된 것을 두고 말들이 많은데, 대구에서 부산까지 고속철도 역시 직선이 아니고 경주와 울산을 돌아가고 천안에서 익산 구간도 직행하지 않고, 중부권인 오송을 거치도록 돼 있다"며 "왜 호남선만 문제 삼느냐"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주 전 원내대표도 "호남고속철도는 호남 차별의 상징이다. 경부라인은 2003년에 완공됐는데 호남라인은 2006년 착공됐고, 일반 철도 역시 호남선은 경부선보다 60년 늦게 복선화됐다"고 반박했다.

천정배 의원은 "과거에는 몇억, 몇 십억 예산도 쉽지 않았는데 고속철 1조원, 광주-완도 고속도로 1000억원 등 굵직한 현안 사업비가 속속 해결돼 스스로도 자랑스럽고 큰 짐을 덜게 됐다"며 "그러나 이번 1회성으로 끝나선 안된다.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국가기구로 지역평등위원회를 법제화하고, 지역평등법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보고대회에는 최경환 광주시당위원장 직무대행과 정인화 전남도당위원장을 비롯해 김원내대표, 박 전 대표, 박주선 부의장, 주 전 원내대표, 장병완·황주홍·손금주·윤영일 국회의원, 이은방 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내년 광주시와 전남도 국비 예산은 광주가 1조9743억원, 전남이 6조16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조인호 기자

지역공감.미래창조.정론직필
湖南新聞
전화 062)224-5800
팩스 062)222-5548

安, 지지율 낮은 원인 묻자 "제3당 둘로 쪼개져있어"

"당내 분란 때문 아냐…전적으로 오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취임 100일을 넘긴 상황에서도 당 지지율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원인 중 하나로 '제3지대 정당 지지율이 둘로 쪼개져 있다'는 점을 꼽았다. 당 지지율이 낮은 원인을 말하면서도 국민의당과 함께 제3지대 정당으로 꼽히는 바른정당과의 통합 필요성을 시사한 것이다.

안 대표는 11일 오전 전북도의회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당 지지율이 낮은 원인을 묻는 질문에 이같은 답변을 내놓았다.

안 대표는 "(당 지지율이 낮은 것에는) 세 가지 주요한 원인이 있다"며 "첫째로 문재인 정부 취임 초기여서 그렇다. 역대 정부를 보면 출범 반년 정도 지났을 때 야당 지지율이 거의 바닥이었다. 이번에도 예외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둘째로 예전 정부 출범과 달리 제3지대 정당이 둘로 쪼개져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저희가 더욱 힘들다"며 "셋째는 당내 이견이 여과 없이 표출되면서 국민들이 다시 시선을 주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부연했다.

안 대표는 당 지지율 회복을 위한 대안으로 "첫째 부분은 당에서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둘째, 셋째 부분은 나름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제3지대 정당이 나뉘어있어 제가 연대 또는 통합을 말한 게 저 나름대로의 대안이었다. 당내 이견이 여과 없이 표출되는데 대해선 제가 노력해 중진들과 열심히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그런데 전체가 알려지기보다는 부분만 알려져 있다. 예를 들면 '당 지지율 하락은 당내 분란 때문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다"며 "이것은 전적으로 오해라 말씀드린다. 당 지지율 하락 요인 부분은 제가 고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임기 마치는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차기 선거, 친홍-비홍 대결"

오는 15일 1년간의 원내 사령탑 자리에서 물러나는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1일 "차기 원내대표를 홍준표 대표가 하는 대로 할 사람을 선택할 것인지 각을 세울 사람으로 선택할지 문제가 (이번 선거에서) 친홍-비홍 대결로 나타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퇴임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의원들과 많은 의견을 나눴지만 중립지대도 사실상 넓은 의미의 비홍이라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기 만료를 나흘 앞둔 원내대표로서 차기 후보군에 대한 관심을 표현한 것일 수 있지만, 원내대표 경선을 하루 앞두고 나온 발언이라 특정 후보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돼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임기 1년에 대해서는 "지난 1년은 22년 제 정치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무거운 짐을 져왔던 순간"이라며 "그야말로 보수를 지키고 수호하기 위한 투쟁의 1년"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제가 원내대표에 당선된 지난해 12월16일 우리 당은 사상 유례없는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었다"며 "대통령 탄핵과 분당 그리고 민심위반이라는 미증유의 거대한 삼각파도를 만나 뿌리까지 뽑혀 소멸되는 절명의 위기에 놓여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원내대표가 되고 처음으로 한 것은 탈당 사태를 막는 것"이라며 "언론에서는 새누리당(현 한국당)이 언제 망하냐는 보도가 계속 나왔고 실제로 몇 명 의원만 더 탈당했다면 당이 무너져 내릴 수도 있는 극단적 상황이라 저는 사투를 벌였다"고 말했다.

지난 1년간 가장 아쉬웠던 점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 면담을 성사시키지 못한 것을 들었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 2월 하순께 박 전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며 "그때 박 전 대통령을 뵙고 제 생각을 관철시켰다면 더 좋은 상황이 이뤄지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설명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국민의당과 개헌·선거제 개혁 공감…각론에선 이견"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당과 합의했던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적극적인 협력 의사를 밝히면서도 각론에서는 이견이 있다고 언급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변창립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민의당과의 당면한 개혁 과제, 가령 개헌, 선거구제 개편, 민생개혁입법과 관련해서는 서로 공감대를 이루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개헌, 선거구제에 있어서 약간 이견이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저희와 국민의당, 그리고 정의당, 바른정당 사이에서 세부적인 이견이 있지만 민의를 더 잘 반영하는 선거구제로 개편해야 된다는 데는 동의하고 있다"며 "접점을 찾을 수 있고, 국민과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큰 만큼 세부적인 이견은 좁혀나갈 수 있다"고 했다.

우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주요 후보 모두가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하겠다고 언급한 사실을 인용하며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실패는 자유한국당 책임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홍준표 대표가 지방선거와 동시 선거를 하는데 있어서 반대하고 있다"며 "이걸 우선 해결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의당, 바른정당, 그리고 정의당과 함께 손잡고 이것부터 해결해야 그 다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